

과채관측

□ 오이, 호박 가격 낮고
토마토, 수박 가격 높을 전망

- ▶ 수박, 토마토 작년보다 출하량 감소할 듯
 - 애호박은 경남지역 시설지원으로 재배규모가 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듯
 - 백다다기오이는 충남지역 출하 증가와 최근 단수 회복으로 가격 낮을 전망
 - 토마토는 정식기 잦은 강우로 인한 병충해 발생으로 반입량 작년보다 적을 듯
 - 수박은 타작목 전환 등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높을 전망

- ▶ 참외를 제외한 11월 과채류 정식면적
작년보다 증가 전망
 - 토마토는 10월 정식지연과 출하기 가격상승 기대로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
 - 애호박 11월 정식은 작년과 비슷하고 12월은 호남지역 재배확대로 증가할 듯
 - 백다다기오이는 정식시기 지연과 재배규모 증가로 작년보다 늘 전망
 - 수박은 경남지역 10월 정식 지연되어 11월 정식면적 증가할 듯
 - 참외는 작년 정식기 저온 등으로 인한 피해 경험에 의해 11월 정식 감소할 듯

채소과채 정식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(%)

	애호박	백다다기오이	취청오이
11월	0.2	1.9	-2.5
12월	0.7	1.3	-4.4

과일과채 정식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(%)

	수박	참외	일반토마토	방울토마토
11월	5.2	-6.7	6.2	4.9
12월	-3.6	0.8	1.6	-3.3

▶ 겨울철 저온피해 방지를 위한
하우스 관리 주의 요망

과일관측

□ 11월 사과·배·감귤 가격
작년보다 20~40% 높을 듯

- ▶ 노지온주 11~12월 출하량 적어
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듯
 -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 작년대비 23% 감소한 50만 3천톤 전망
 - 오렌지 11월 수입량 작년 및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1천톤 내외일 듯
 - 단감 생산량은 서리 및 병해충 피해로 작년보다 8% 적은 18만톤 추정
- ▶ 후지 11월 가격은 당도·색택이 양호하고,
대체과일 적어 작년보다 높을 전망
 - 올해 동해 및 태풍, 탄저병 등의 피해로 사과 상품과율은 작년보다 낮을 듯
 - 배 저장량은 작년보다 12% 적고, 11~12월 가격은 작년대비 강세 전망
 - 배 생산량은 흑성병과 태풍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14% 적은 35만 9천톤 추정

- ▶ 포도, 복숭아 2010년 생산량은
작년보다 각각 5%, 17% 감소 추정
 - 올해 시설포도 가격이 높아 내년 가온시설 재배면적 2% 증가 전망
 -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내년 복숭아 신규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늘어날 듯

채소관측

□ **엽근채소 11월 가격 전월 대비 하락폭 뚜렷할 듯**

- ▶ 배추·무 가격 하락폭 큰 반면, 감자는 11월에도 상승세 이어질 전망
 - 가을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배추 도매 가격은 10월 하순 7,000원(상품 10kg)에서 11월 중순 이후 5,000원, 12월 4,000원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. 한파 피해가 있을 경우는 1,000~2,000원 더 높게 형성될 전망.
 - 충청지역 가을무 출하 지연으로 무 도매가격은 10월 하순 2만 2,500원(상품 18kg)에서 11월 상순에 2만원, 11월 중순 이후 1만~1만 5천원으로 내려가겠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2배 내외 높을 전망. 한파 피해가 있을 경우는 5,000원 내외 더 높게 형성될 전망.
 - 겨울당근이 출하될 11월 하순 이전까지 당근 가격은 4만원(상품 20kg) 대로 높게 유지되다가 11월 하순 이후 3만원 이하로 내려가겠으나 평년보다는 여전히 높을 전망.
 - 호남지역 양배추가 출하될 11월 중순 이전까지 양배추 가격은 1만 6,000원(상품 8kg) 수준의 강세가 지속되었고, 11월말에 1만원 대로 내려갈 전망이다, 이 역시 평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.
 - 감자 출하 부진으로 11월 가격은 2만 7,000~2만 9,000원(상품 12kg)의 약상승세 전망.
- ▶ 감자 겨울작형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증가, 당근·양배추 재배면적은 감소
 - 겨울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서귀포지역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2% 증가.

- 당근·양배추는 재배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하락과 정식 지연으로 7~9% 감소

□ **양념채소 : 마늘·양파 가격 약보합세 전망**

- ▶ 수입물량 증가로 마늘·양파 가격 전월보다 약세 전망
 - 마늘 재고량 작년보다 27% 적으나 정부수입 1만 2천 톤 증량에 따라 11월 가격은 전월 대비 약세 전망.
 - 2010년산 양파 재고량은 작년보다 적지만, 11월 수입량 증가 전망에 따라 11월 가격은 약세 전망.
- ▶ 수확량 감소로 건고추는 전월대비 보합세, 풋고추는 강세 지속
 - 건고추 11월 가격은 전월대비 보합세 전망. 김장철 이후 가격은 수요 감퇴로 약보합 전망.
 - 풋고추 11월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정식 지연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일반계와 청양계는 평년 동월보다 각각 48%, 46% 높을 전망.
 - 대파 11월 가격은 산지출하량 회복으로 전월보다 28% 낮아지겠지만, 평년에 비해서는 2배 수준 전망. 12월 초순부터 겨울대파 본격 출하 전망.
- ▶ 재배(의향)면적 동향
 - 2011년산 마늘·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수확기 가격 상승으로 2010년산보다 3%, 1% 증가 전망. 월동대파는 작년보다 8% 증가할 전망.

농업관측정보

축산관측

- 12~내년 2월 한우 가격 470~490만원 전망 - 2011년 3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 10% 증가 예상
- ▶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여 12월과 내년 3월 사육 마리수 증가세 지속
 - 인공수정(정액판매) 증가로 2011년 8월까지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2010년보다 높아
 - 12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10.5% 증가한 292만 마리, 2011년 3월 사육 마리수도 전년보다 10.4% 증가한 299만 마리 전망
- ▶ 도축과 수입량 증가로 12~내년 2월 쇠고기 공급 5.5% 증가
 - 출하지연 물량이 많아 12~내년 2월 도축 마리수는 전년(19만 7천 마리)대비 6.6% 증가한 21만 마리로 전망
 - 환율 안정으로 12~내년 2월 쇠고기 수입량은 약 5만 7천 톤(전년대비 4.4% 증가) 추정
- ▶ 연말과 내년 초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예상
 - 도축 마리수와 수입량 증가로 12~내년 2월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470~490만원(600kg 기준)으로 전년(577만원)보다 크게 하락 전망
 - 12~내년 2월 한우 암소 산지가격도 전년 동기(584만원)보다 크게 하락한 470~490만원, 수송아지 가격은 200~220만원 전망

곡물관측

-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2.6% 감소하여 가격은 강보합세 전망

- ▶ 11월 들어 쌀 가격 상승세로 전환
 - 11월 들어 산지 쌀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됨. 11월 15일 산지 쌀 가격은 13만 6,432원/80kg으로 10월 25일대비 0.3% 상승하였음.
 - 도매가격도 11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어 전월대비 6.2% 상승함.
- ▶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 벼 자체매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7.5% 감소
 - 11월 16일 기준 산지유통업체들의 수확기 벼 자체매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7.5% 감소한 134만 9천 톤으로 조사됨.
 -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2010년 벼 매입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5% 감소한 151만 톤임.
- ▶ 2010년산 벼 가격은 강보합세 전망
 - 2010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2.6% 감소한 429만 5천 톤임(통계청, 11월 16일 확정치 발표).
 - 정부가 공공비축미 34만 톤, 예상 수요량을 초과한 8만 6천 톤, 백수피해곡 2만 5천 톤을 매입함에 따라 수확기 시장 공급량은 전년대비 8.6% 감소한 384만 4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.
 - 산지유통업체들의 벼 매입가격 결정이 늦어지면서 벼 가격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12월 이후부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40kg당 4만 2,000원~4만 5,000원으로 전망됨.
 - 수확기 벼값 결정이 늦어지면서 쌀가격 상승은 벼에 비해 더딜 것으로 예상됨. 수확기 쌀 가격은 현시세보다 상승하여 14만 원 내외일 것으로 전망됨. 내년 단경기 쌀 가격은 수확기에 비해 4~7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 ㉟